예비후보들 선전에 마음 바빠진 현역의원들

“총선 나갑니다”… 서둘러 예비 등록

4·11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후보 등록 시점까지 누렸던 ‘현역’ 프리미엄을 과감히 버리고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 등이 설 연휴 직전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선거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20명의 국회의원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회의원은 진보통합당 김선동(순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인기(나주·화순)·장병완(남구) 의원 등이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25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3선 도전을 밝히는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조영택(광주 서구 갑) 의원도 26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조만간 예비후보를 등록하거나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초박빙·접전 물갈이 여론에 조바심

다중장소 축사 등 프리미엄 던지고

플래카드 홍보 본격 선거운동 나서

이처럼 현역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예비후보를 일찍 등록하거나 출마 기자회견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설 명절 연휴가 빨라진데다 상대 예비후보들의 ‘선전’으로 인한 조바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 중 최인기 의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다른 예비후보와 각축을 벌이거나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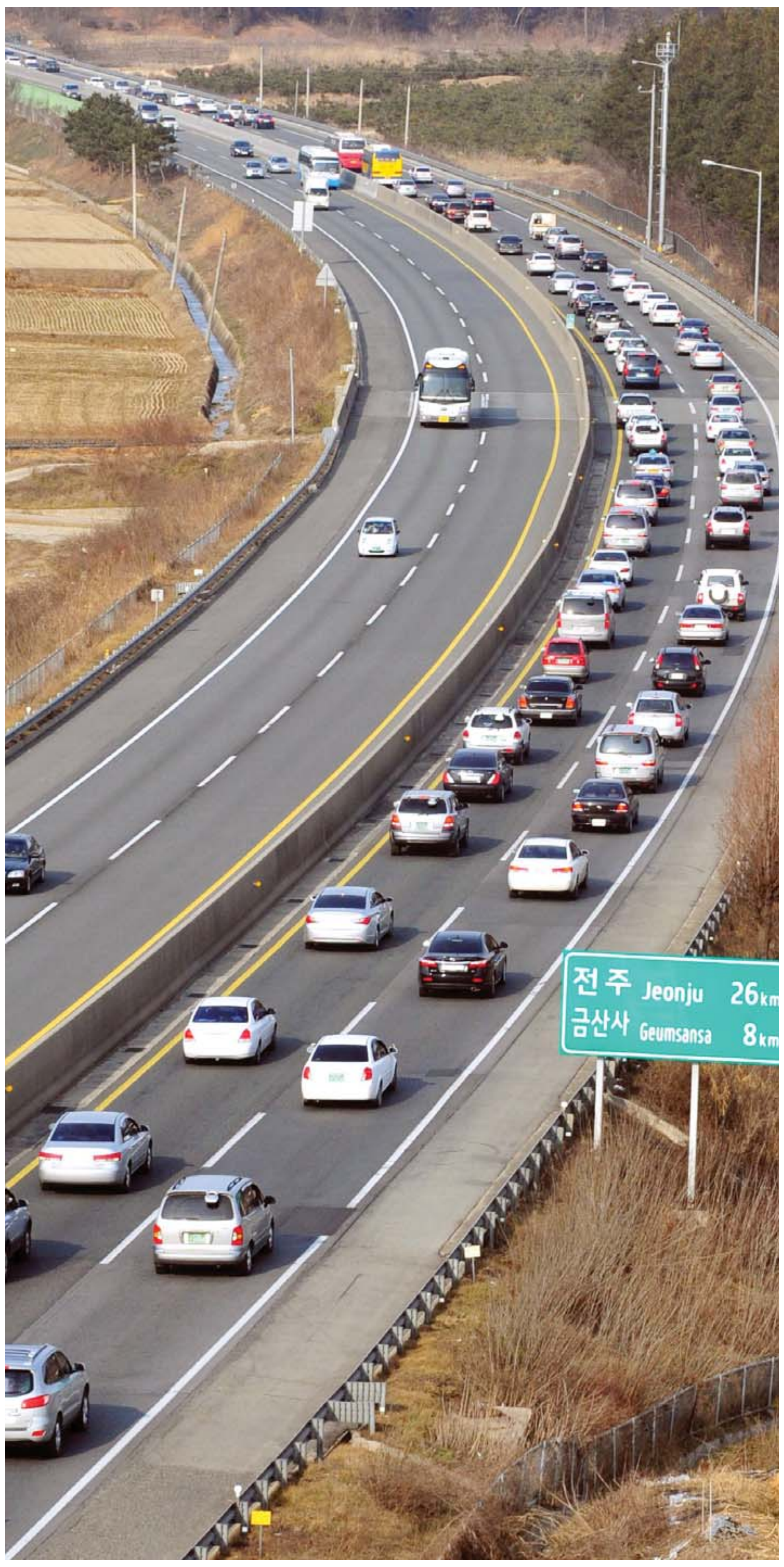
또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아진데다 의정보고회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장점이 크게 약화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역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축사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명함 등 홍보물 배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플래카드를 내걸고 선거구민들에게 출마를 알릴 수 있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장병완 의원 측은 “설 명절 연휴가 과거와 달리 빨라진 상황에서 연휴기간 형성되는 여론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현역 프리미엄 보다는 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일부 선거구는 현역 의원마저 앞질러버린 상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과거와 달리 많이 확대된 만큼 현역 의원들의 이른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향의 정 담고 일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 금산사 나들목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헬기 조종 : 박창순 광주시 소방항공대장, 장화식 부기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통합진보당 “인지도를 높여라”

광주일보 여론조사 지지율 3.5%… 민노당때보다 4%P 하락 초비상

당원 총동원 아파트·상가 돌며 저인망식 홍보 나서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율 올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인 통합연대 등 3개 세력이 통합해 통합진보 당을 출범한 지 2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정당 지지율은 되레 민주노동당 때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일보가 KBC광주방송과 공동으로 설 연휴 직전 광주·전남 유권자 2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3.5%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통합 이전의 지지율(7.5%.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지지율)에 비해 4.0%포인트 나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노동당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 진보당 관계자들은 당명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두 정당 이름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면서 유권자들이 헷갈려 하는 데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정당 사상 유례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모바일 투표를 시도하는 등 국민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 그늘에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당 지지율을 올리고 당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내 주요 거리에 통합진보당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광고 홍보물 4만 부를 만들어 광주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에 배부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4·11 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와 당원을 총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저인망식 홍보도 함께하고 있다.

곽근영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대변인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민주통합 당과 통합진보당을 헷갈려 하고 야권이 모두 통합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걱정”이라며 “4·11 총선 전까지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당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 청년비례대표제 전면 재설계

연령상한 조정·접수 기한 재연장 검토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에 도입하기로 한 청년 비례대표제와 관련, 내부에서 연령 상한 논란 제기와 저조한 신청 접수 등에 따라 원점부터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비례대표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최고위원 1명에게 총괄책임을 맡기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괄책임은 486의 대표격인 이인영 최고위원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시 청년층을 25~30세, 31~35세 등 두 연령대로 나눠 슈퍼스타K 방식의 경연을 거친 뒤 연령대별로 남녀 1명씩 4명을 비례대표 후보에 배정하고 최고점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애초 13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28일로 신청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 19일 현재 40명 가량이 등록할 정도로 여전히 관심도가 낮은 상태다.

민주당은 청년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최고위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청년 비례대표 연령 상한을 35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접수 기한을 재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내년 설은 이보단 낫겠지, 안그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2호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 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번열이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담허겁(心膽虛怯)
몹시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항(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장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하수증 등에서 볼 수 있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케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증상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증상을 우선 개선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을, 심담기허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담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양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침구과

진료안내: • 홧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완비 ※ (건물 옆 패밀리 렌터카)

침 · 뜸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